

항공영화

THE DREAM IS ALIVE

주연 : Walter Cronkite, David Leestma | 조연 : James Van Hoften | 감독 : Graeme Ferguson | 제작팀장 : Phyllis Wilson | 제작 : Graeme Ferguson | 음악 : Maribeth Solomon | 상영시간 : 40분



인간의 우주 도전은 어디까지 일까?

아이맥스 영화로 알려진 우주 이야기 ‘The Dream is Alive’는 이러한 물음에 리얼한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답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우주 진출을 꿈꾸는 다양한 이야기가 영화로 다루어졌었다. 예를 들어 외계인과의 한판 대결이나 달 탐험 등과 같은 약간의 과장이 섞인 영화들이 바로 그것인데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The Dream is Alive’는 이와는 달리 굉장히 리얼한 우주 도전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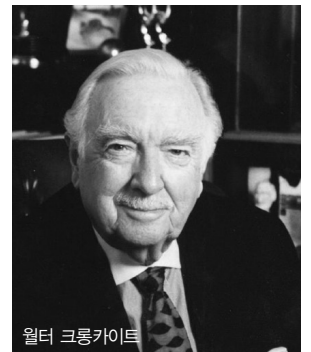
우선 이 영화는 우주 왕복선과 기존 로켓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첫 오프닝 장면을 보면 우주 왕복선이 마치 비행기처럼 지구로 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로켓이 발사된 후 바다에서 낙하산으로 회수되는 장면과 비교하여 일반 로켓 시스템과 우주 왕복선이 어떻게 틀린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영화는 지상으로부터 250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위성의 수리작업이나 우주 유영을 하면서 어떻게 우주 왕복선에서 우주인들이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명의 비행사가 훈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중력 테스트 장면이나 고속의 실감나는 비행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서 우주비행사가 되기까지의 고충을 관객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마음으로 보는 우주여행

특히 눈물이 날 정도로 선명한 우주공간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아이맥스 극장용 화면의 효과를 최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사를 자아내게 만든다. 또한 미국이 우주탐사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던 시절 미국의 대표적인 목소리라 불리던 ‘윌터 크롱카이트’가 영화의 전체적인 내레이션을 맡아 설명함으로써 영화의 전반적인 흥미를 더하고 있다.



윌터 크롱카이트

그럼 퍼거슨 감독은 이 영화를 우주 도전을 묘사한 이전 영화 시리즈 중 하나인 ‘Blue Planet’ 과 같이 관객들에게 설교하는 듯한 진부한 구성은 가급적 배제하고 단순 간결하면서 이미지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깔끔한 편집과 맛깔스러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 했다고 말한다.

특히 이 영화에는 ‘스타워즈’의 사운드 디자이너였던 벤 버트가 참가하여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웅장한 우주선 발사장면에서 그 만이 가지고 있는 음향효과와 음향 기술을 발휘, 영화의 웅장함과 흥미를 최대로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화 제작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영화는 신비한 우주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하며 때로는 긴장감 있게,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황홀하게 그리고 지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장엄함 이상의 메시지

아이맥스 영화는 말 그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시야에 전체 화면이 모두 들어오도록 만든 대형 스크린용 영화이다.

그 중 'The Dream is Alive'는 아이맥스 영화의 초창기 시리즈 중 최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성 우주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총 상영 시간은 40분으로 일반 극영화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우주의 신비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웅장하고 감동적인 화면으로 구성, 영화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보는 듯 한 기분으로 우주를 그려내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눈앞에는 광활한 안데스 산맥, 이탈리아의 전경, 이집트의 사막, 그리고 웅장한 나일강의 모습 등이 숨 막힐 정도로 화려하고 멋지게 펼쳐지며 어느덧 자신의 몸이 정말 무중력 상태로 지구 주위를 도는 듯 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중간 중간에는 눈여겨 볼만한 역사적인 장면도 나온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우주 산책 모습이나 우주유영을 하는 장면 등을 볼 수 있으며 실제적인 왕복선 내에서의 우주인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이면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주비행에는 그러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된 후 약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로 사람들은 당황했고 우주비행의 위험성이 세삼 부각되면서 잠시 우주 개발 계획은 중단의 위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사고 1년 후인 1985년, 영화는 개봉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

(현재 이 작품은 DVD로 출시되어 집안에서도 우주의 감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